

본 자료는 법무부에서 외주 사업을 통해 번역한 문서로, 법무부의 공식 입장과 무관하며 인용이 불가합니다. 정확하고 상세한 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출처원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에는 약 705개의 민족 집단이 지정부족(Scheduled Tribes)으로 등재되어 있다. 인도 중부에서 지정부족은 일반적으로 아디바시(Adivasis)라고 불리는데, 이는 본래의 거주민, 즉 원주민(Indigenous Peoples)이라는 뜻이다.¹ 이들의 추정 인구는 1억 4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8.6%를 차지한다. 그러나 지정부족 지위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민족 집단이 훨씬 더 많으므로, 지정부족의 실제 총인구는 공식 집계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 내 원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북동부 7개 주와, 라자스탄(Rajasthan)주에서 서벵골(West Bengal)주로 이어지는 이른바 '중부 부족 벨트(central tribal belt)'이다. 인도는 중부 지역에 적용되는 헌법 '제5부속서(Fifth Schedule)'와 북동부 특정 지역에 적용되는 '제6부속서(Sixth Schedule)' 등을 통해 원주민의 토지권과 자치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주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현행 법제는 많은 결함을 안고 있으며, 실제 이행 수준 또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인도 정부는 공식 발표에서 '원주민 인구(Indigenous Populations)'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빈도를 늘리고 있다. 예를 들어 '트리푸라(Tripura)주 원주민 인구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언어적 문제'²를 조사하기 위한 고위급 위원회 설립이나 「시민권법 개정안(Citizenship Amendment Bill, 2019)」의 정당성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이 용어를 사용했다. 자르칸드(Jharkhand)주 정부는 세계 원주민의 날인 8월 9일을 자르칸드주의 공휴일로 지정했다.³

포커스: 탄압 속에서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원주민 청년들

인도 전역에서 원주민 청년들은 원주민의 권리 보장, 선조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의 보호, 환경과 사회를 파괴하는 개발 사업 저지 투쟁에서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그들은 탄압의 표적이 되고 있다.

아루나찰 프라데시(Arunachal Pradesh)주의 원주민 청년들은 수천 명의 강제 이주를 초래할 대규모 수력발전 사업에 맞서 저항의 최전선에 서 있다. 원주민 청년들이 이끄는 시앙 원주민 농민 포럼(Siang Indigenous Farmers Forum, SIFF)은 1만 1,000메가 와트 규모의 '시앙 상류 다목적 저수 사업(USMP)'에 대한 광범위한 반대 운동을 조직해 왔다. 이 사업은 심각한 생태학적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아디(Adi) 원주민 공동체의 문화유산을 소실시킬 우려가 크다. 7월 8일, SIFF의 청년 지도자 둥게 아팡(Dunge Apang)과 변호사 에보 밀리(Ebo Mili)는 USMP 반대 평화 시위를 준비하던 중 당국에 의해 임의 구금되었다. 이들은 10시간 넘게 구금되었으며, 향후 시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받았다. 에보 밀리 변호사는 앞선 2022년 3월과 2023년 8월에도 대형 댐 건설 반대 시위와 관련하여 사법적 괴롭힘(judicial harassment)을 당한 바 있다.⁴

마찬가지로 아삼(Assam)주에서도 카지랑가 국립공원(Kaziranga National Park) 인근의 논란이 된 5성급 호텔 건설 사업에 반대하던 원주민 청년 활동가들이 공격과 탄압의 표적이 되었다. 지난 8월, 원주민 청년 활동가 프라납 돌리(Pranab Doley), 마노하르 페구(Manohar Pegu), 리투판 페구(Ritupan Pegu)를 비롯한 '위대한 카지랑가 토지·인권 위원회(GKLHRC)' 회원들은 호텔 건설을 위해 강제 퇴거당한 가족들의 증언을 수집하던 중 카지랑가 롱가잔(Rongajan) 마을에서 100여 명의 폭도들에게 포위당했다. 폭도들은 프라납 돌리를 표적으로 삼았고 그와 토지·인권 위원회(GKLHRC) 회원들을 위협했다. 경찰은 이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마노하르 페구와 리투판 페구 등 활동가들을 구금했다.⁵ 해당 호텔 건설 사업은 환경과 야생동물,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⁶

8월에는 마디아 프라데시(Madhya Pradesh)에 위치한 다르(Dhar) 지구의 울트라테크 시멘트(Ultratech Cement) 공장에서 부족 노동자가 사망한 후, 부족 청년들은 책임 규명과 근로 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조직한 사건도 있었다. 그러나 당국은 이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대신, 150명 이상의 부족 청년들을 「국가보안법(National Security Act, NSA)」 위반 등의 형사 혐의로 입건했다.⁷

대법원, 지정카스트 및 지정부족 중 소수 하위 집단을 위한 별도 할당제 허용

8월 1일, 인도 대법원은 각 주 정부가 정해진 범주 내에서 지정카스트(Scheduled Castes, SCs)와 지정부족(Scheduled Tribes, STs)의 하위 그룹을 분류할 수 있는 권한을 6대 1의 다수결로 인정했다. 이 결정은 지정카스트(SC) 및 지정부족(ST)들이 동질적이기 때문에 하위 분류가 불가하다고 보았던 2004년 EV 치나이아(EV Chinnaiah)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법원은 정량화 가능하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조건 하에, 하위 그룹 분류를 허용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집단에게 할당을 추가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주정부가 임의적으로 할당을 운영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다. 이 판결을 통해 지정카스트(SC)와 지정부족(ST)들은 모두 동질적인 집단은 아니며, 구조적 차별로 인해 일부 하위 집단이 할당제(reservation)의 혜택을 동등하게 누리지 못했음을 재확인했다.⁸

이번 판결은 가장 취약한 집단을 우선 배려함으로써 지정카스트(SC) 및 지정부족(ST) 공동체 내부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각 주, 특히 미조람(Mizoram)주의 이행 방식을 두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미 구조적 차별에 직면해 있는 차크마(Chakmas)족 등 소수 부족에게 할당되는 고등교육기관 입학 정원이 주류 부족에 비해 현저히 적기 때문이다. 이는 격차를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들의 소외를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⁹

의회가 지정부족 목록을 개정했으나 여전히 제외된 수많은 부족들과 특별취약부족그룹

2월, 인도 의회는 「2024년 헌법(잠무·카슈미르) 지정부족 명령(개정) 법안», 「2024년 헌법(지정부족) 명령(개정) 법안», 「2024년 헌법(지정카스트 및 지정부족) 명령(개정) 법안」을 가결했다. 이 3개 법안의 통과로 잠무·카슈미르, 안드라 프라데시(Andhra Pradesh), 오디샤(Odisha)주의 지정부족(ST) 목록에 50개 이상의 집단이 새로 등재되었다. 여기에는 7개의 '특별취약부족그룹(Particularly Vulnerable Tribal Groups, PVTGs)'을 비롯하여, 발음상 표기 이형(異形)이나 이명(異名)을 가진 부족들, 그리고 일부 신규 공동체가 포함된다. 그동안 지정부족 목록에 등재되지 못했던 탓에, 해당 집단들은 공직 할당제(reservation in services)나 교육기관 입학 우대 등 정부가 지정부족에게 제공하는 각종 혜택에서 소외되어 왔다.¹⁰

그러나 특별취약부족그룹(PVTGs)을 포함하여, 여전히 지정부족(ST)으로 인정받지 못한 부족들이 다수 존재한다.

여기에는 안드라 프라데시(Andhra Pradesh)주의 토티(Tothi)족, 안다만·니코바르 제도(Andaman and Nicobar Islands)의 그레이트 안다만(Great Andamanese)족, 서벵골(West Bengal)주의 토토(Totos)족, 마니푸르(Manipur)주의 마람 나가(Maram Naga)족,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주의 마리아 곤드(Maria Gond)족, 그리고 마디아 프라데시(Madhya Pradesh)주의 힐 코르바(Hill Korbas)족과 아부즈 마리아(Abujh Maria)족 등 6개 부족이 포함된다. 이들은 지정부족(ST)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잔혹 행위 피해를 입더라도 「1989년 지정카스트 및 지정부족(잔혹행위 방지)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결과, 피해자들은 사실상 사법적 구제는 물론 기타 지원 혜택에서도 배제되어 있다.¹¹

토지 및 산림 자원에 대한 권리 침해 지속

「산림보호법 개정안(Forest Amendment Act, 2023)」¹²은 중앙정부에 특정 범주의 산림지를 산림 인가(forest clearance) 없이 전용하거나, 일부 개발 사업을 인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여기에는 국경 100km 이내에서 시행되는 ‘안보 관련 선형 사업’이나, 좌익 극단주의 피해 지역 내 준군사 조직 캠프 및 공공시설 등 10헥타르 이하 규모의 국방 관련 건설 사업이 포함된다.¹³ 따라서 대법원의 별도 집행정지 명령이 없는 한, 이러한 사업들에 산림 인가 의무 요건이 적용되지 않을 소지가 크다. 그러나 「산림보호법 개정안(FCA Amendment Act, 2023)」은 「지정부족 및 기타 전통적 산림 거주자 산림권 인정법(2006)」¹⁴ 제4조제(e)항에 명시된 지정부족의 산림권은 물론, 「판차야트(Panchayats, 마을 단위 자치기구) 지정 지역 확대 규정법(1996)」¹⁵ 제4조에 따른 그람 사바(Gram Sabhas, 마을 회의)의 ‘자유롭고 사전적이며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동의’ 권한을 침해한다. 현재 인도 대법원은 개정안의 위헌성을 다투는 청원을 심리 중이며, 중앙정부는 새 법률상 산림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한 예외 지침이 마련될 때까지 어떠한 ‘성급한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고 했다.¹⁶ 한편, 구와하티(Guwahati) 고등법원에서도 이 개정안의 위헌성을 다투는 별도의 청원¹⁷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는 국경 100km 이내의 ‘안보 관련 선형 사업’에 대한 산림 인가 면제가 인도 북동부 전역의 산림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그레이트 니코바르 섬(Great Nicobar Island)에서 7조 2,000억 루피(81억 1,642만 유로) 규모의 대형 사업을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할 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숲의 100에이커를 추가로 전용하려 하고 있다.¹⁸

이 사업은 인도 정부가 '특별취약부족그룹(PVTGs)'으로 분류한 쇼펜(Shompen)족과 니코바레세(Nicobarese) 원주민 부족의 생존을 위협한다. 국제컨테이너환적항(International Container Transshipment Port, ICTP) 사업의 1단계는 2028년에 착수될 예정이다. 2024년 8월까지 11개 사업자가 그레이트 니코바르 제도의 국제 환적항 사업에 대한 관심 표명서를 제출했으며, 정부는 현재 세부 사업 보고서를 확정하고 있다.¹⁹

국제컨테이너환적항(ICTP) 외에도 국제공항, 신도시, 발전소 건설 등 3개 세부 사업이 섬 내 1만 6,610헥타르 규모의 부지에서 추진되고 있다.²⁰ 2023년, 전국녹색재판소(National Green Tribunal, NGT)는 일부 미비점을 확인하고, 해당 사업에 부여된 환경 인가(EC)를 재검토하기 위해 고위급 위원회(High-Powered Committee, HPC)를 구성했다.²¹ 그러나 전국녹색재판소(NGT)는 이 사업이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국방 및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는 이유로, 환경 및 산림 인가에 대한 개입을 거부했다.²² 인도 지정부족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Scheduled Tribes, NCST) 또한 본 사업이 '인도 지정부족위원회(NCST)와의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입에 나섰고, 안다만·니코바르 제도 행정 당국에 사실관계 및 조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²³ 아울러 인도 정부는 조기 경보 절차를 발동하여 개입한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 Committee) 측에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²⁴ 2023년 12월,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인도의 무대응에 유감을 표명하며, 제기된 혐의에 대해 해명하고 *안다만·니코바르 제도의 특별취약부족그룹(PVTGs)*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을 인도 정부에 촉구했다.²⁵ 2025년 1월 5일, 야당인 인도국민회의(Congress)는 그레이트 니코바르 섬 인프라 구축 사업을 '생태적·인도주의적 재앙을 초래할 화근'으로 규정했다. 이어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독립적인 조사 위원회(independent panel)를 통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거칠 것을 촉구했다.²⁶

차티스가르(Chhattisgarh)의 하스데오 아란드(Hasdeo Arand) 산림에 관계된 분쟁 역시 계속되고 있다. 10월 17일, 원주민 공동체가 당국이 석탄 채굴을 위해 나무를 베는 것을 막으려 하자 경찰과 충돌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산림 관리 당국을 호위하던 경찰 2명이 화살에 맞아 부상을 입었고, 경찰은 부족민 10명을 살인 미수와 폭동 혐의로 입건했다.²⁷ 이 분쟁은 수르구자(Surguja) 지역 파테푸르(Fatehpur)·살리(Sali) 마을 인근에서 벌목이 재개되면서 촉발되었는데, 해당 벌목은 라자스탄 주 전력공사(Rajasthan Rajya Vidyut Utpadan Nigam Limited, RVUNL)가 수주하고 아다니 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파르사(Parsa) 석탄광 구역 사업의 일환이다.²⁸

산림은 원주민 공동체에게 있어 생계와 문화의 근간이다. 그러나 원주민들은 산림 관련 문제에 있어 부당한 처우를 받는다. 2월 21일, 오디샤(Odisha) 주정부는 소비세법, 산림법 및 국유지 무단 점유 관련 법령 위반 혐의로 부족민들을 기소한 4만 8,000여 건의 경미한 사건에 대해 기소 철회를 명령했다. 부처별로는 소비세국(Excise Department) 소관이 3만 6,581건, 주택도시개발부 소관이 9,846건, 산림환경부 소관이 1,591건으로 집계되었다. 해당 사건들에는 가계 소비나 지역 시장 판매를 목적으로 소규모 임산물(minor forest produce, MFP)을 채취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포함되어 있었다.²⁹

원주민의 권리는 사업 및 기반시설 개발을 위한 강제 퇴거나 토지 수용 과정에서 자주 침해된다. 6월 19일, 국가호랑이보호청(National Tiger Conservation Authority, NTCA)은 18개 주의 수석 야생동물 관리관에게 전국 54개 호랑이 보호구역의 핵심 지역 내 848개 마을에서 8만 9,800개의 부족 및 산림 거주 가구를 '우선적으로' 약식 절차를 통해 비자발적 이주 또는 강제 퇴거시키라는 명령을 하달했다. 이 명령이 시행되면 보존이라는 명목하에 역대 최대 규모의 주민 이주 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 명령은 가장 취약한 집단의 생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보호법(1972)」과 「산림관리법(2006)」 등 부족 공동체를 위한 여러 법적 보호 장치도 위반하는 것이다.³⁰ 10월, 150여 개의 부족 권리 단체와 활동가들이 NTCA의 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하자, 인도 지정부족위원회(NCST)는 국가호랑이보호청(NTCA)과 환경산림기후변화부(Ministry of Environment, Forest and Climate Change)에 이주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했다.³¹ 이 사안은 현재 심리 중이다.

5월 10일, 타밀나두(Tamil Nadu)주 다르마पुर리(Dharmapuri) 지역의 펜나가람-호게나칼(Pennagaram-Hogenakkal) 산림 지역에서 수십 년간 거주해 온 부족민 15가구가 산림부에 의해 강제 퇴거당했다. 대규모 산림 관리인력과 경찰이 동원되었으며, 당국은 대체 거주지나 기본 편의시설도 제공하지 않은 채 여성과 어린이들을 끌어냈다. 퇴거에 저항한 여성들은 협박을 당했고, 그중 최소 3명이 부상을 입었다.³²

11월 11일, 텔랑가나(Telangana)주 비카라바드(Vikarabad) 지구 행정관(District Collector)은 관계 공무원들을 대동하고 라가차를라(Lagacharla) 마을을 방문하여, 제약 단지 조성을 위한 강제 토지 수용 계획을 발표했다. 같은 날 저녁, 수백 명의 경찰 병력이 지역 폭력배들과 함께 마을을 급습하여 시위 중이던 주민들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임산부마저 무차별적인 폭력을 피하지 못했다. 또한 외부로의 도움 요청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인터넷과 전력 공급을 고의로 차단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경찰은 허위 진술을 근거로 최초 범죄 신고서(First Information Reports, FIRs)를 접수하여 주민들을 입건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성을 포함한 주민들은 경찰의 가혹 행위를 우려해 집을 떠나 숲과 농지로 피신했으며, 그곳에서 식량과 의료 지원, 기초 편의시설도 없이 도피 생활을 해야 했다. 텔랑가나 주정부는 전임 정부가 최첨단 제약 시티(Pharma City) 조성을 위해 이미 1만 6,000에이커의 부지를 확보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당갈(Kodangal) 선거구 내 1,374에이커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제약 빌리지(Pharma Village)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사전 고지 없이 강제 수용된 이 토지는 부족민과 기타 소외 계층이 대대로 소유하며 경작해 온 비옥한 농지였다. 피해 주민들은 4~5개월 넘게 토지 수용 반대 시위를 이어왔다. 11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NHRC)는 피해자 12명의 진정을 접수한 뒤 텔랑가나 주정부에 보고서 제출을 명령했다. 아울러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현장 조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³³

일부 사례에서는 원주민 공동체의 토지를 탈취하는 과정에서 공무원과의 유착이 드러나기도 했다. 7월 22일, 텔랑가나(Telangana)주 메닥(Medak) 지구 샤바드 탄다(Shabad Thanda)에서 유력 인사들이 토지를 점유하려 하자 이에 항의하던 부족 여성 3명이 도끼와 몽둥이로 폭행당했다. 당시 경찰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이를 수수방관했으며, 피해자들의 신고 접수조차 거부했다. 8월 8일, 인도 원주민 변호사협회(ILAI)가 제기한 진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NHRC)는 메닥 지구 경찰서장(SP)에게 8주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³⁴ 8월에는 마디아 프라데시(Madhya Pradesh)주 시브पुरी(Shivpuri) 지구 부르크라(Burkra) 마을에서 한 유력 인사를 위해 토지를 비워 달라는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65세의 고령인 부족 남성을 고문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9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NHRC)는 시브पुरी 지구 수석 행정관(DM)과 경찰서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8주 이내에 조치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³⁵

10월 19일, 안드라 프라데시(Andhra Pradesh)주 스리카쿨람(Srikakulam) 지구의 ST 막발라사(ST Makvalasa) 마을에서는 토지 강탈에 저항하던 부족민들이 비부족민들에게 공격당했다.³⁶ 부족민들은 비부족민들이 토지 행정 공무원(revenue officials)과 공모하여 문서를 위조했고, 약 104.46에이커에 달하는 부족 토지를 불법적으로 강탈했다고 주장했다.³⁷ 국가인권위원회(NHRC)는 스리카쿨람 지구 수석 행정관에게 8주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³⁸ 비슷한 사례로, 11월 안드라 프라데시주 아나카팔리(Anakapalli) 지구 파나살라파두(Panasalapadu) 마을의 부족민들은 부족 토지에 대해 비부족민 명의로 발급된 파타(pattas, 토지 소유권 증서)의 취소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토지 재조사 과정에서 토지 행정 공무원들이 부동산 중개인들과 결탁했다고 주장했다.³⁹ 12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NHRC)는 아나카팔리 지구 수석 행정관에게 8주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⁴⁰

탈취된 토지를 원래 부족 소유주에게 반환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하기도 했다. 일례로 8월 12일, 안드라 프라데시(Andhra Pradesh)주 아나카팔리(Anakapalli) 지구 라만나도라팔렘(Ramannadorapalem) 마을의 콘두(Konddhu) 특별취약부족그룹(PVTG) 부족민 30명은, 1978년부터 1988년 사이 합법적으로 발급받은 토지 증서(pattas)가 토지 재조사 과정에서 누락되자 이의 복원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3월 14일 아나카팔리 세무 행정관(Tahsildar)이 조사를 거쳐 이들에게 토지 증서를 교부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민들의 권리는 회복되지 않았다. 이에 8월 14일, 인도 원주민 변호사협회(ILAI)는 국가인권위원회(NHRC)에 PVTG 부족민들의 토지 증서 복원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개입해 달라는 진정을 제기했다.⁴¹ 오디샤(Odisha)주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12월 5일 기준, 탈취된 부족 토지를 원 소유주에게 반환해야 하는 1,535건의 사건이 당국에 계류 중이었으며, 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은 1만 9,690건에 달했다.⁴²

보안군과 반군 세력에 의한 원주민 인권 침해

잠무-카슈미르 지역을 제외하면, 인도의 무력 충돌은 주로 원주민이 거주하는 영토에 집중되어 있다. 원주민들은 2024년에 구금 중 사망과 고문 등 인권침해의 희생자가 되었다.

2024년에 보고된 사건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 1월 6일, 자르칸드(Jharkhand)주 란치(Ranchi) 지구에서 불법 주류 단속 중 체포된 25세 원주민 남성이 소비세국(Excise Department) 구금 중 살해된 것으로 추정됨.⁴³
- 1월 26일, 마디아 프라데시(Madhya Pradesh)주 라틀람(Ratlam) 지구에서 22세 원주민 남성이 야간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구타당한 트라우마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음.⁴⁴
- 6월 19일, 자르칸드주 란치 지구 카르시다그(Kharsidag) 경찰 초소 책임자가 하지도 않은 범죄에 대한 자백을 강요하며 원주민 남성 2명을 고문함.⁴⁵
- 7월 3일, 오디샤(Odisha)주 삼발푸르(Sambalpur) 지구 치필마(Chipilma) 경찰 초소에서 경찰이 차량 배터리 절도 혐의로 30세 원주민 남성을 고문함.⁴⁶
- 7월 14일, 마디아 프라데시주 구나(Guna) 지구 미아나(Myana) 경찰서에서 절도 사건 연루 혐의로 연행된 25세 원주민 남성이 고문을 당한 끝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⁴⁷
- 7월 19일, 아루나찰 프라데시(Arunachal Pradesh)의 창랑(Changlang) 지역에서 49세 원주민 여성이 마약류 및 향정신성 약물법 관련 혐의 사건으로 체포된 후 경찰 구금 중 고문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⁴⁸
- 7월 26일 밤, 자르칸드주 파쿠르(Pakur) 지구에서 경찰이 납치 사건 수사를 이유로 KKM 대학에 무단 진입하려 하자 이를 막아선 원주민 학생 10명을 구타함.⁴⁹
- 8월 23일, 마디아 프라데시주 칸드와(Khandwa) 지구 판다나(Pandhana) 경찰서에서 절도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45세 원주민 남성이 고문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⁵⁰
- 10월 2일, 오디샤주 순다르가르(Sundargarh) 지구 치다구아(Chhidagua) 마을에서 철도보안대(RPF)가 철도 기물 절도 혐의로 원주민 형제 2명을 불법 구금하고, 펜치로 손톱을 뽑으려 하거나 발에 끓는 물을 붓는 등 고문을 자행함.⁵¹
- 10월 17일, 트리푸라(Tripura)주 남부 트리푸라 지구 마누바자르(Manubazar) 경찰서에서 고무판 절도 혐의로 체포된 34세 원주민 남성이 고문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⁵²
- 10월 19일, 텔랑가나(Telangana)주 잔가온(Jangaon) 지구 팔라쿠르티(Palakurthi)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가족 분쟁 사건과 관련해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던 24세 원주민 남성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함.⁵³

북동부 지역과 '부족 벨트'의 낙살라이트(Naxalite, 반군) 피해 지역의 많은 원주민들이 2024년에 보안군에 의해 초법적 살해 및 구금을 포함한 인권 침해의 희생자가 되었다. 7월 16일, 아쌘주 카차르(Cachar) 지역에서 경찰이 3명의 원주민 남성을 무장세력이라는 혐의로 사살했으나, 이는 이른바 '가짜 교전(fake encounter)'을 통해 조작된 사건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⁵⁴ 11월 12일, 차티스가르주 비자푸르(Bijapur) 지역 콘다팔리(Kondapalli)에서 시위에 참여했다는 혐의로 경찰은 두 명의 젊은 원주민 소녀를 체포하기도 했다.⁵⁵

반군 조직(Armed opposition groups, AOGs), 특히 마오이스트(Maoists)는 2024년 동안 국제인도법을 명백히 위반하며 '경찰 정보원'이라는 혐의로 원주민들을 계속 표적으로 삼았다. 마오이스트 폭력의 희생자는 다음과 같다.

- 3월 29일,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주 가드치롤리(Gadchiroli) 지구에서 부족 청년 1명이 살해됨.⁵⁶
- 5월 26일, 오디샤(Odisha)주 칸다말(Kandhamal) 지구에서 25세 부족 남성이 납치된 뒤 살해됨.⁵⁷
- 6월 7일, 차티스가르(Chhattisgarh)주 콘다곤(Kondagaon) 지구 팀디(Timdi) 마을에서 부족 남성이 총격으로 사망함.⁵⁸
- 11월 22일, 텔랑가나(Telangana)주 물루구(Mulugu) 지구에서 부족 형제 2명이 살해됨.⁵⁹

원주민 여성의 상황

원주민 여성과 소녀들의 개인적·집단적 권리는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에서 일반적으로 부정되거나 침해당하고 있다. 성폭력, 인신매매, 살해 또는 마녀 사냥(branding a witch), 군사화 또는 국가 폭력, 개발로 인한 강제 이주의 영향은 여성과 소녀들이 직면하는 주요 문제다.

12월 19일, 대법원이 연방정부에 지정부족(ST) 여성의 평등한 상속권을 보장하기 위해 「힌두 상속법(1956)」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 것은 긍정적인 진전이다. 현행 법률은 정부가 별도로 고시하지 않는 한, 지정부족 여성에게 부계 재산에 대한 평등한 상속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권리 배제가 "법리상 부당하다(bad in law)"고 규정한 2022년 판결을 재확인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가치를 강조했다.⁶⁰

원주민 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보안군 및 정부 관리, 비부족민 모두에 의해 지속적으로 자행되었다.

1월 20일, 아루나찰 프라데시(Arunachal Pradesh)주 파퐁 파레(Papum Pare) 지구 나하를라군(Naharlagun) 기차역에서 인도 예비대대(Indian Reserve Battalion, IRBn) 순경을 포함한 4명이 12세와 14세의 원주민 소녀 2명을 납치했다. 가해자들은 1월 22일 이들이 구조되기 전까지 여러 장소에서 이들을 반복적으로 집단 강간했다. 아루나찰 프라데시주 경찰은 국가인권위원회(NHRC)에 가해자들을 체포해 기소하고, 해당 순경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보고했다.⁶¹ 2월 2일, 카르나타카(Karnataka)주 마이수루(Mysuru) 지구 넬로레(Nellore)의 나가라홀레 호랑이 보호구역(Nagarahole Tiger Reserve) 인근 마을에서는 산림청 공무원이 고수입 일자리를 미끼로 17세 부족 소녀를 친구 집으로 유인해 강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체포되어 수감되었다.⁶² 11월 15일, 차티스가르(Chhattisgarh)주 마넨드라가르-치르미리-바라트푸르(Manendragarh-Chirmiri-Bharatpur) 지구에서는 학교 교장, 교사 2명, 산림청 공무원이 공모하여 17세 원주민 소녀를 집단 강간했다. 이들은 범행 장면을 촬영한 뒤, 피해 사실을 발설하면 소셜 미디어에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으며, 11월 22일 피해자를 재차 집단 강간했다. 가해자 4명은 전원 체포되어 관련 법 조항에 따라 기소되었다.⁶³

이 밖에도 2024년 한 해 동안 비부족민 또는 상위 카스트에 의해 자행된 원주민 여성 및 소녀 대상 성폭력 사건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1월에서 5월 사이, 마디야 프라데시(Madhya Pradesh)주 시디(Sidhi) 지구에서는 한 비부족민 남성이 음성 변조 앱으로 여교사를 사칭, 장학금 수령을 미끼로 여학생들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해 최소 7명을 강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⁶⁴ 5월, 라자스탄(Rajasthan)주 카라울리(Karauli) 지구에서는 가해자 소유의 밭에서 놀고 있던 11세의 청각·언어 장애 소녀를 상위 카스트 남성 2명이 강간하고 산 채로 불태워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⁶⁵ 5월 3일, 아삼(Assam)주 고알파라(Goalpara) 지구에서는 축제에 참석하고 귀가하던 원주민 미성년자 2명이 비부족민 남성들에게 집단 강간을 당했다.⁶⁶ 8월 19일에는 차티스가르(Chhattisgarh)주 라이가르(Raigarh) 지구에서 남성 8명이 27세 부족 여성을 집단 강간한 사건이 있었다.⁶⁷

8월 28일 서벵골(West Bengal)주 닥신 디나즈푸르(Dakshin Dinajpur) 지구에서는 정치 지도자의 아들이 13세 부족 소녀의 자택에 침입해 강간 및 살인 미수를 저질렀다.⁶⁸ 또한 8월 31일 아루나찰 프라데시(Arunachal Pradesh)주 파퐁 파레(Papum Pare) 지구에서의 10세 소녀 성추행 사건,⁶⁹ 10월 15일 케랄라(Kerala)주 에르나쿨람(Ernakulam) 지구에서 고용주가 가사 도우미인 부족 여성에게 약물을 탄 주스를 마시게 한 뒤 저지른 강간 사건,⁷⁰ 11월 4일 텔랑가나(Telangana)주 하이데라바드(Hyderabad) 지구에서 비부족민 남성 3명이 일자리 제공을 구실로 50세 여성을 유인한 뒤 강간한 사건 등이 보고되었다.⁷¹ 대다수의 사건에서 피의자들은 체포되었다. 그러나 라자스탄주 카라울리 지구에서 발생한 11세 청각·언어 장애 소녀 강간 및 방화 살인 추정 사건의 경우, 경찰이 최초 범죄 신고서(FIR)에 강간 혐의를 기재하지 않아 부실 수사라는 비난을 샀다. 이에 9월, 피해자 유가족과 지역 부족민들은 중앙수사국(Central Bureau of Investigation, CBI) 차원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⁷²

경찰은 원주민 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에서 느장 대응으로 일관하거나 가해자를 비호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지난 2월, 마디아 프라데시(Madhya Pradesh)주 구나(Guna) 지구의 한 부족 여성은 지난 2년간 공립학교 교사로부터 지속적으로 강간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목살당하자, 억울함을 호소하는 영상을 소셜 미디어에 게시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가 수차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외면받던 이 사건은,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된 후에야 비로소 접수되었다. 그러나 경찰은 적절한 강간 혐의 대신 경미한 혐의를 적용하여 사건의 엄중함을 훼손했다.⁷³ 또한 10월 24일, 케랄라(Kerala)주 티루바난타푸람(Thiruvananthapuram) 지구에서는 남성 3명이 15세 부족 소녀를 집단 강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당일 즉시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경찰은 이들이 지난 10월 26일에야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했다. 심지어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가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건을 축소·은폐하도록 부모를 압박한 사실도 드러났다.⁷⁴

인도 내의 부족(Tribe) 실태 현황

1997년, 브루(Bru)족(레앙(Reang)족으로도 불림)은 미조람(Mizoram) 내 민족 분쟁으로 인해 거주지에서 강제 이주되었다. 이들은 2024년에도 트리푸라(Tripura) 내 재정착지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브루족의 재정착지는 트리푸라 북부, 달라이(Dhalai), 고마티(Gomati), 트리푸라 남부 등 4개 지구에 걸쳐 있다.⁷⁵ 11월 29일, 100명 이상의 브루족 주민들은 달라이 지구 내 13개 재정착지에 대한 농지 배분을 요구하며 국도를 봉쇄했다. 시위대에 따르면, 2020년 브루족의 트리푸라 영구 정착 합의 체결 당시 정부는 모든 가구에 농지 지급을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일부 가구에만 토지가 배분되었다.⁷⁶ 이 시위로 인해 브루족이 처한 상황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12월 22일, 아밋 샤(Amit Shah) 연방 내무장관은 트리푸라 방문 중 재정착 캠프를 시찰하고, 관계 당국에 브루족이 제기한 고충과 현안을 신속히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⁷⁷

2005년 살와 주둠(Salwa Judum)과 마오이스트 간의 분쟁을 피해 차티스가르(Chhattisgarh)를 떠나 텔랑가나(Telangana), 안드라 프라데시(Andhra Pradesh),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 오디샤(Odisha) 등 인접 주로 피신한 구티 코야(Gutti Koya) 원주민들 또한 여전히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들은 사회보장 혜택에서 배제된 채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11월 8일, 인도 지정부족위원회(NCST)는 인도 중앙정부와 각 주정부에 구티 코야 부족민의 현황에 대한 상세 보고서 제출을 요청했다. 현재 약 5만 명의 구티 코야 부족민이 오디샤, 안드라 프라데시, 텔랑가나, 마하라슈트라주 산림 지역 내 248개 정착촌에 거주하고 있다.⁷⁸

드문 성공 사례로, 아루나찰 프라데시의 홀롱기(Hollongi) 공항 건설로 인해 추방된 156가구의 차크마(Chakma)족 가정들은, 그들의 재활과 재정착을 위해 책정된 2억 7,510만 루피가 부패로 인해 횡령되었다는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해 냈다. 이 자금은 당국이 설립한 차크마 재활 및 재정착 위원회(Chakma Rehabilitation and Resettlement Committee)가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차크마 실향 가족 정의 실현 위원회(Chakma Displaced Family Justice Demand Committee)의 진정에 근거해, 아루나찰 프라데시 경찰의 특별수사단은 최초 범죄 신고서(FIR) 09/2022호를 등록했다.⁷⁹ 조사 결과 대규모 비리와 횡령 혐의를 밝혀냈다. 10월에 특별수사단(SIC)은 인도 「형법」 제120(B)/406/409/420조와 「부패방지법」 제13(2)조에 따라 아루나찰 프라데시의 파품 파레 지역 부패방지법 특별재판부에 비자이 란잔 차크마 및 9명에 대해 사건 번호 PCA-07/2024로 기소장을 제출했다. 첫 심리는 12월 17일에 열렸다.⁸⁰

유엔인권이사회의 심의에 오른 인도

2024년 7월 1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제141차 회기에서, 인도는 인권이사회의 심의를 받았다. 당시 원주민들은 그림자 보고서(shadow report)를 제출하며 자신들의 상황에 부합하는 권고안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심의 후 채택된 최종 견해에서, 위원회는 원주민에게 매우 중요한 권고사항을 6개 이상 제시했다. 그중 하나는 원주민과 부족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에 있어, 국제적 기준에 따라 '자유롭고 사전적이며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동의(FPIC)'를 구하는 데 필요한 참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적용하고, 국가 및 공공·민간 기업과 체결한 합의의 준수를 보장하라는 것이었다.

나가족의 고향

현대적 의미의 '나가 민족(nationhood)'이라는 개념은 나가(Naga)족 내부에서도 그 역사가 비교적 짧다. 전통적으로 나가족은 영토에 대한 애착이 강했고, 생활 반경이 대체로 자신들의 마을로 국한되었으며, 마을의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⁸³ 나갈랜드(Nagaland)는 1만 6,579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차지하며, 약 22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2011년 마지막으로 실시된 제15차 인도 인구조사 기준). 공식 경계는 북쪽으로 아루나찰 프라데시, 서쪽으로 아삼(Assam), 남쪽으로 마니푸르(Manipur), 동쪽으로 미얀마(버마)와 접해 있으며, 인도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주 중 하나이다. 오늘날까지 나가족은 식민지 및 탈식민지 시대 이루어진 영토 분리의 결과로 버마 나가와 인도 나가로 나뉘어 있다. 이는 나가족이 미얀마 북서부와 인도 북동부의 원주민임을 의미한다.

2024년은 인도 내무부의 인도와 미얀마 간의 자유왕래체제(Free Movement Regime, FMR)를 폐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논쟁으로 시작되었다.⁸⁴ 내무부의 결정에는 국내 안보를 보장하고 미얀마와 접경한 인도 북동부 주들의 인구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목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나갈랜드 입법의회는 이 결정이 국경 양쪽에 거주하는 나가족에게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며 인도 정부에 결정을 재고할 것을 호소하는 만장일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⁸⁵

자유왕래체제(FMR) 폐지에 관한 공식 통보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도-미얀마 국경에 적용되는 자유왕래체제(FMR)는 1970년 인도와 미얀마 간의 양자 합의로 도입되었으며, 2018년 인도의 ‘행동하는 동방정책(Act East Policy)’의 일환으로 시행된 바 있다.⁸⁶

원주민 청년과 여성을 인도 사회에 통합하기

원주민 청년들은 자신들의 원주민 정체성, 문화, 지속 가능하고 정의로운 사회, 그리고 그들의 토지 및 영토와의 연결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주체로서 공동체에 크게 기여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식민화와 동화 정책의 세대 간 영향으로 인해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들은 사법 제도 및 기타 제도화된 행정 체계에서의 구조적 차별, 영토 경계에 대한 불확실성, 사회경제적 소외와 같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면서도 원주민 공동체로서의 뿌리를 유지하려 노력한다.

국가는 의사결정 분야에서 원주민 청년의 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주민을 중심으로 한, 특히 청년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여성 포용 사례 또한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24년 6월 26일, 나갈랜드주에서는 20년 만에 도시 지방자치단체(ULBs)⁸⁷ 선거가 치러졌다. 총 523명의 후보(남성 325명, 여성 198명)가 출마한 이번 선거에서는 전체 의석의 33%가 여성에게 할당되었다. 선거 결과, 여성은 278석 중 102석을 차지하며 공적 영역 참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⁸⁸ 이는 2023년 나갈랜드 입법의회(NLA) 선거에서 두 명의 여성이 직접 선출된 성과를 잇는 긍정적인 발전으로 평가된다.⁸⁹

이는 원주민 청년과 여성이 정치 과정에 전면적으로 참여하고, 남성 동료들에게 인정받으며, 의사결정 및 정책 개발에서 그들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국가의 역할을 보완하여, 2024년 7월 12일 국가개혁기구(National Institution for Transforming India, NITI) 아요그(Aayog)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측면에서 성평등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⁹⁰

정의와 인정

원주민을 위해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회복적이며 총체적인 사법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약속은 공염불이 되었다. 2024년 9월 17일, 인도 대법원이 2021년 12월 4일 발생한 오팅(Oting) 학살 사건에 연루된 인도군 30명에 대한 형사 절차를 종결하기로 판결함에 따라, 원주민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정의와 책임 규명에 있어 퇴보를 의미한다.⁹¹ 나갈랜드 주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형사 영장청원(Writ Petition)을 제기했다.⁹² 또한 다양한 대중 기반 조직 및 기타 단체들⁹³도, 정의로운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다양한 공동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건이 적시에 처리되지 못하면서, 피해자 가족들은 소송 비용 부담과 함께 미해결 사건에 따른 낙인을 떠안은 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나갈랜드 주정부는 주 내 원주민의 신분을 인증하기 위한 시도로, 3인 위원회의 조력을 받아 2019년 6월 ‘나갈랜드 원주민 거주자 등록부(The Register of Indigenous Inhabitants of Nagaland, RIIN)’를⁹⁴ 출범시켰다. 그러나 2021년 이 제도의 시행은 중단되었다. 이는 등록부가 주 경계 외부에 거주하는 나가족 인구를 배제할 가능성이 있고, 기타 예측 불가능한 위험과 파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가 부족 대표 기구와 여타 소수 부족들로부터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나갈랜드 주정부는 내각 소위원회의 보고서와 권고를 토대로 2024년 9월 20일 가로(Garo), 카차리(Kachari), 쿠키(Kuki), 미키르(Mikir) 등 4개 소수 부족에 한정하여 RIIN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본질적으로 차별적인 조치이자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⁹⁵

인도 북동부 아루나찰 프라데시(Arunachal Pradesh)주의 특정 지역에는 나가족 인구가 흩어져 거주하고 있는데, 아루나찰 프라데시 정부는 티랍(Tirap), 창랑(Changlang), 롱딩(Longding) 지역에서 '나가'라는 이름을 공식 용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결정은 나가족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는데, 이는 주민들의 전통적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정체성 문제가 심각한 우려 사항이 되었다.⁹⁶ 이 지침은 지역 주민의 정체성을 더 잘 반영하겠다는 주 정부의 정책의 일환이었다.

2023년, 마니푸르에서는 메이테이(Meitei)와 쿠키-조(Kuki-Zo) 부족 공동체 간의 분쟁으로 인해 방화, 기물 파손, 살인, 약탈, 강간, 납치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사태가 발생했다. 마니푸르주에 거주하는 나가족은 민족 기반 폭력으로 인해 강제이주, 마을과 재산 훼손,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다. 2024년에도 주정부와 중앙정부가 시행한 즉결 사살, 무기한 통행금지 등의 조치에 따른 영향으로 폭력사태는 지속되었다. 공동체들은 이러한 편향적 정책이 폭력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호소했지만, 잔혹행위는 잇따랐으며 두 공동체 간의 긴장이 통제 불능 상태로 악화되는 결과만을 낳았다. 분쟁이 시작된 이래 거의 226명⁹⁷이 살해되었고, 수십 명의 여성이 강간당했으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 내부와 외부로⁹⁸ 피난을 떠났다.⁹⁹ 납치된 여성과 어린이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하는 항의시위가 더욱 거세졌다.

쿠키-조, 메이테이, 나가 공동체에 폭력을 중단할 것을 호소하기 위한 시도로, 각 공동체 출신 의원들이 중앙정부 관리들을 만났지만¹⁰⁰ 실질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진행 중인 폭력의 종식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진전은 없었다.

장기화되고 있는 정치적 대화가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최전선 대중 조직 등의 압력 속에서, 나가족의 역사적·정치적 권리를 인정하고 고유의 정체성과 조화를 이루는 자기결정적 미래를 인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인도-나가 평화 프로세스(Indo-Naga Peace Process)가 계속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가운데 10월 초, 중앙정부가 나갈림 국가사회주의평의회(National Socialist Council of Nagalim, NSCN-IM)의 지도자들을 공식 초청하면서 평화 회담이 재개되었다.¹⁰²

자유, 신앙, 신념을 지탱하는 전통

나가족은 공동체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든 문화적 혼란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인정하는데 있어, 언제나 자신들의 원주민 문화에 기반한 접근 방식에 의존해 왔다.

선조의 유해 송환은 전 세계 많은 원주민 공동체에게 문화적 재생과 유산 회복을 위한 중요한 행위로 여겨진다. 이런 맥락에서, 2024년 10월 약 3,500~4,500파운드(GBP)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는 19세기 '나가족의 뿔 달린 두개골' 한 점이 송환되었다. 이는 원래 영국 기반 골동품 및 경매 회사인 스완 앳 테츠워스(Swan at Tetsworth)에 의해 경매에 부쳐졌으나, 나가 화해 포럼(Forum for Naga Reconciliation, FNR)과 주(州)의 부정적 반응에 따라 철회되었다.¹⁰³ 이 사건은 또한 나가족 선조의 유해를 둘러싼 각종 활동을 촉진하고 통합하려는 나가 화해 포럼(FNR)의 노력에 있어 중요한 진전을 이룬 계기로도 평가된다.¹⁰⁴

전통적인 정치 체계의 지속적인 실천을 바탕으로 한 탈식민지화 운동의 또 다른 예로, 2024년 11월 22일에는 롱쿰(Longkhum) 마을에서 30년 임기를 가진 지도부의 새 시작을 기념한 것을 들 수 있다. 모코총(Mokokchung) 지역의 아오(Ao) 부족이 거주하는 이 마을은 여전히 푸투 멘덴(Putu Menden)이라는 명확한 정치 제도를 유지하고 따르고 있다. 이 제도는 30년을 주기로 순환적으로 운영되는 마을의 최고 권력기관이다.¹⁰⁵ 원주민이 정치 체계/통치 구조를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그들의 문화적 생존과 다양한 지식 체계에 위협이 되는 착취와 지배의 영향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불평등과 배제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2010년부터 주(State) 승격의 대안으로 논의되어 온 '나갈랜드 특별 자치령(Frontier Nagaland Territory, FNT)'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를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12월 16일, 동부 나갈랜드 인민기구(Eastern Nagaland Peoples' Organization, ENPO)는 행정·재정·입법 자치권을 포함한 인도 정부(GoI)의 FNT 제안을 잠정 수락한다고 발표했으며, 2025년 1월 5일 3자 회담을 재개하기로 했다.¹⁰⁶ 주정부는 나갈랜드 측의 폭넓은 정치적 열망을 인정하면서도, 인도 정부의 이번 결정이 잠정적 조치임을 확인했다. 과거부터 이어진 불평등과 배제로 인해, 원주민들은 정치·사회·문화적 관행을 복원하고 보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영향에 더욱 취약해졌다.

아울러 결속력 약화와 개발 미진, 동부 나гал랜드 지역에 대한 관심 부족 그리고 토지·자원과 뚜렷하게 연관되어 있는 '나가족'의 정체성을 고려할 때, 공동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제도를 통해 구성원들의 적응 및 발전 역량을 유지하고 실질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 질서와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국가는 원주민 청년의 핵심적인 역할을 인정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을 위한 지속 가능하고 통합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해결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현시점에서, 이는 청년들의 사회적 진출과 의사결정을 가속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원주민 공동체의 경우, 자원 및 기타 사안을 둘러싼 문제는 매우 첨예하며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어 있다. 청년들을 제도권 내에 포용하면서도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속 가능한 절차를 제공하는 것은 여전한 난제이나, 이는 합의에 기반한 전환으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다. 2024년은 여전히 대립으로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주석 및 참고문헌

1. Since the Scheduled Tribes or "tribals" are considered India's Indigenous Peoples, these terms are used interchangeably in this text.
2.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Home Affairs, North East Division. 11011/53/2012-NE-V. 27 September 2018. https://mha.gov.in/sites/default/files/filefield_paths/HLC_Tripura.PDF
3. "World Indigenous People's Day: Jharkhand CM declares public holiday, Congress plans grand celebration." The Times of India, 9 August 2020.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city/ranchi/world-indigenous-peoples-day-cm-declares-public-holiday-cong-plans-grand-celebrations/articleshow/77438738.cms>
4. "Denounce the illegal detention of Ebo Mili and Dunge Apang! Stand against mega-dams in Arunachal Pradesh and Northeast India!" iPMSDL, 23 July 2024. <https://www.ipmsdl.org/statement/denounce-the-illegal-detention-of-ebo-mili-and-dunge-apang-stand-against-mega-dams-in-arunachal-pradesh-and-northeast-india/>
5. "Manohar Pegu - Greater Kaziranga Land and Human Rights Committee (GKLHRC)." Business &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8 August 2024. <https://www.business-humanrights.org/en/latest-news/manohar-pegu-greater-kaziranga-land-and-human-rights-committee-gklhrc/>
6. "Kaziranga's Future at Stake: The Clash Between Tourism and Conservation." Assam Times, 4 September 2024. <https://www.assamtimes.org/node/23264>
7. "Madhya Pradesh: Sarva Adivasi Samaj Demands Probe Into Case Against 150 Tribal Youths." The Free Press Journal, 19 August 2024. <https://www.freepressjournal.in/indore/madhya-pradesh-sarva-adviasi-samaj-demands-probe-into-case-against-150-tribal-youths>
8. "SC allows states to sub-classify SCs, STs for quotas within reserved categories." The New Indian Express, 1 August 2024. <https://www.newindianexpress.com/nation/2024/Aug/01/sc-allows-states-to-sub-classify-scs-sts-for-quotas-within-reserved-categories>

9. "Fate of Schedule Tribes sub-quota in Mizoram uncertain after Supreme Court ruling." The Hindu, 7 August 2024. <https://www.thehindu.com/news/national/mizoram/fate-of-schedule-tribes-sub-quota-in-mizoram-uncertain-after-supreme-court-ruling/article68497085.ece>
10. "Press Release dated 11 February 2024 issued by the Ministry of Tribal Affairs, Government of India." <https://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2004918>
11. "NHRC seeks reply from Centre on some tribal groups not included in ST List." The New Indian Express, 13 October 2024. <https://www.newindianexpress.com/nation/2024/Oct/13/nhrc-seeks-reply-from-centre-on-some-tribal-groups-not-included-in-st-list>
12. The Forest (Conservation) Amendment Act, 2023, <https://egazette.gov.in/WriteReadData/2023/247866.pdf>
13. The Forest (Conservation) Amendment Act, 2023, <https://egazette.gov.in/WriteReadData/2023/247866.pdf>
14. The Scheduled Tribes and Other Traditional Forest Dwellers (Recognition of Forest Rights) Act, 2006 can be accessed at <https://www.indiacode.nic.in/bitstream/123456789/8311/1/a2007-02.pdf>
15. The Provisions of the Panchayats (Extension to the Scheduled Areas) Act, 1996 can be accessed at <https://www.indiacode.nic.in/bitstream/123456789/1973/1/A1996-40.pdf>
16. "SC refrains from staying amendments to Forest Conservation Act", Hindustan Times, 30 November 2023. <https://www.hindustantimes.com/india-news/sc-refrains-from-staying-amendments-to-forest-conservation-act-101701337562226.html>
17. PIL/60/2024 titled Sabda Ram Rabha Versus Union of India and 8 Ors.
18. Great Nicobar infra project a recipe for ecological disaster: Congress, The Hindu, 6 January 2025. <https://www.thehindu.com/news/national/andaman-and-nicobar-islands/great-nicobar-infra-project-a-recipe-for-ecological-disaster-congress/article69065864.ece>
19. Govt finalising Great Nicobar transshipment port's DPR, NGT scrutiny earlier, The Business Standard, 4 August 2024. https://www.business-standard.com/india-news/govt-finalising-great-nicobar-transshipment-port-s-dpr-ngt-scrutiny-earlier-124080400130_1.html
20. "NGT's Stand on Nicobar Mega Project Disappointing, Say Conservationists", The Wire, 8 April 2023. <https://thewire.in/environment/ngt-great-nicobar-project-disappointing#:~:text=Kochi%3A%20The%20National%20Green%20Tribunal,affect%20indigenous%20communities%20and%20damage>
21. "NGT's Stand on Nicobar Mega Project Disappointing, Say Conservationists", The Wire, 8 April 2023. <https://thewire.in/environment/ngt-great-nicobar-project-disappointing#:~:text=Kochi%3A%20The%20National%20Green%20Tribunal,affect%20indigenous%20communities%20and%20damage>
22. "NGT's Stand on Nicobar Mega Project Disappointing, Say Conservationists", The Wire, 8 April 2023. <https://thewire.in/environment/ngt-great-nicobar-project-disappointing#:~:text=Kochi%3A%20The%20National%20Green%20Tribunal,affect%20indigenous%20communities%20and%20damage>

23. "Great Nicobar project: NCST launches probe into allegations of 'adverse' impact on local tribals", The Print, 30 April 2023. <https://theprint.in/india/great-nicobar-project-ncst-launches-probe-into-allegations-of-adverse-impact-on-local-tribals/1547332/>
24.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9 April 2022.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INT%2FCERD%2FALE%2FInd%2F9556&Lang=en
25.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8 December 2023.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INT%2FCERD%2FALE%2FIND%2F9937&Lang=en
26. Great Nicobar infra project a recipe for ecological disaster: Congress, The Hindu, 6 January 2025, <https://www.thehindu.com/news/national/andaman-and-nicobar-islands/great-nicobar-infra-project-a-recipe-for-ecological-disaster-congress/article69065864.ece>
27. "What is the Hasdeo Arand mining issue, and why villagers clashed with the police." The Indian Express, 28 October 2024. <https://indianexpress.com/article/explained/hasdeo-arand-mining-issue-protest-9641436/>
28. "Chhattisgarh: Violence Erupts as Locals Prevent Tree-Felling in Hasdeo Forest, Several Injured." The Wire, 18 October 2024. <https://thewire.in/rights/chhattisgarh-violence-erupts-as-locals-prevent-tree-felling-in-hasdeo-forest-several-injured>
29. "Odisha to withdraw 48000 minor cases against tribals." Hindustan Times, 21 February 2024. <https://www.hindustantimes.com/india-news/odisha-to-withdraw-48000-minor-cases-against-tribals-101708528998681.html>
30. "How the NTCA Defied the Tribal Ministry, its Own Officials to Order Massive Displacement of Tribals For 'Conservation'." The Wire, 4 November 2024. https://thewire.in/environment/ntca-conservation-displacement-tribal-ministry/?mid_related_new
31. "Scheduled Tribes panel to seek report from NTCA on villages' relocation from tiger reserves." The Indian Express, 5 November 2024. <https://indianexpress.com/article/india/village-relocation-tiger-reserve-national-commission-scheduled-tribes-ntca-9653193/>
32. "Eviction drive: Forest dept personnel manhandle women." The Times of India, 11 May 2024.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city/salem/forest-department-eviction-drive-women-manhandled/articleshow/110023710.cms>
33. "NHRC takes cognizance of Telangana's Lagacharla villagers' complaint of police harassment." ANI, 21 November 2024. <https://www.aninews.in/news/national/general-news/nhrc-takes-cognizance-of-telanganas-lagacharla-villagers-complaint-of-police-harassment20241121234705/>
34. Complaint of ILAI dated 26 July 2024 filed with the NHRC registered as Case No.653/36/6/2024.
35. Complaint of ILAI dated 9 August 2024 filed with the NHRC registered as Case No.1599/12/44/2024.
36. "Tribals allege attack by non-tribals, lodge complaint with police." Hans India, 21 October 2024. <https://www.thehansindia.com/andhra-pradesh/tribals-allege-attack-by-non-tribals-lodge-complaint-with-police-915891>
37. "Removal of encroachments in tribal lands demanded." Hans India, 13 August 2024. <https://www.thehansindia.com/andhra-pradesh/removal-of-encroachments-in-tribal-lands-demanded-898990>
38. Complaint of ILAI dated 13 August 2024 filed with the NHRC registered as Case No.1327//1/20/2024.
39. "Tribals stage protest demanding cancellation of pattas issued to non-tribals in Panasalapadu." The Hindu, 21 November 2024. <https://www.thehindu.com/news/cities/Visakhapatnam/tribals-stage-protest-demanding-cancellation-of-pattas-issued-to-non-tribals-in-panasalapadu/article68890460.ece>

40. Complaint of ILAI dated 22 November 2024 filed with the NHRC registered as Case No. 1720/1/28/2024.
41. Complaint of ILAI dated 14 August 2024 filed with the NHRC registered as Case No.1272/1/28/2024.
42. "Nobody can encroach tribal land in Odisha, says Revenue Minister Suresh Pujari." Odishatv.in, 5 December 2024. <https://odishatv.in/news/odisha/nobody-can-encroach-tribal-land-in-odisha-says-revenue-minister-250456>
43. Complaint filed by ILAI on 20 January 2024 with the NHRC registered as Case No.27/34/16/2024-PCD.
44. Complaint filed by ILAI on 29 January 2024 with the NHRC registered as Case No.201/12/35/2024-AD.
45. Complaint filed by ILAI on 27 June 2024 with the NHRC registered as Case No.836/34/16/2024.
46. Complaint filed by ILAI on 8 July 2024 with the NHRC registered as Case No.933/18/13/2024.
47. Complaint filed by ILAI on 16 July 2024 with the NHRC registered as Case No. 1683/12/17/2024-AD.
48. Complaint filed by ILAI on 20 July 2024 with the NHRC registered as Case No.23/2/4/2024-PCD.
49. Complaint filed by ILAI on 29 July 2024 with the NHRC registered as Case No.975/34/14/2024.
50. Complaint filed by ILAI on 24 August 2024 with the NHRC registered as Case No.1890/12/25/2024-AD.
51. Complaint filed by ILAI on 7 October 2024 with the NHRC registered as Diary No.16582/IN/2024.
52. Complaint filed by ILAI on 19 October 2024 with the NHRC registered as Case No.46/23/3/2024-AD.
53. Complaint filed by ILAI on 19 October 2024 with the NHRC registered as Case No.895/36/15/2024.
54. Complaint filed by ILAI on 19 July 2024 with the NHRC registered as Case No.170/3/2/2024-ED.
55. "'Protest and you'll be jailed': Two tribal minor girls held in Bijapur, kin left in dark for 15 days." Newslandry, 30 November 2024. <https://www.newslandry.com/2024/11/30/protest-and-youll-be-jailed-two-tribal-minors-held-in-chhattisgarh-kin-left-in-dark-for-15-days>
56. "As LS polls near, Maoists kill tribal 'informer' in G'chiroli." The Times of India, 30 March 2024.<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city/nagpur/as-ls-polls-near-maoists-kill-tribal-informer-in-gchiroli/articleshow/108886954.cms>
57. "Maoists abduct and kill tribal youth after rape bid on wife." The New Indian Express, 28 May 2024.<https://www.newindianexpress.com/states/odisha/2024/May/28/maoists-abduct-and-kill-tribal-youth-after-rape-bid-on-wife>
58. "Informer shot dead by Maoists in Chhattisgarh's Kondagaon: Police." Hindustan Times, 8 June 2024.<https://www.hindustantimes.com/cities/others/informer-shot-dead-by-maoists-in-chhattisgarh-s-kondagaonpolice-101717853812554.html>
59. "Telangana: Branding as 'informers', Maoists kill two tribals." The Times of India, 22 November 2024.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city/hyderabad/telangana-branding-as-informers-maoists-kill-two-tribals/articleshow/115552013.cms>

60. "Supreme Court calls for property rights parity for tribal women." Hindustan Times, 20 December 2024.
<https://www.hindustantimes.com/india-news/supreme-court-calls-for-property-rights-parity-for-tribal-women-101734665720536.html>
61. Complaint of ILAI dated 31 January 2024 filed with the NHRC registered as Case No.6/2/10/2024.
62. Complaint of ILAI dated 19 February 2024 filed with the NHRC registered as Case No.270/10/15/2024.
63. Complaint of ILAI dated 27 November 2024 filed with the NHRC registered as Diary No.19672/IN/2024.
64. "Man posing as female teacher using voice changing app raped 7 tribal girls in Madhya Pradesh." The Times of India, 25 May 2024.<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city/bhopal/man-posing-as-female-teacher-using-voice-changing-app-raped-7-tribal-girls-in-madhya-pradesh/articleshow/110413296.cms>
65. "'My daughter told me in gestures what happened'—mother of Rajasthan tribal girl burnt alive." The Print, 25 May 2024.<https://theprint.in/ground-reports/my-daughter-told-me-in-gestures-what-happened-mother-of-rajasthan-tribal-girl-burnt-alive/2100757/>
66. Complaint of ILAI dated 27 August 2024 filed with the NHRC registered as Diary No. 13816/IN/2024.
67. Complaint of ILAI dated 21 August 2024 filed with the NHRC registered as Case No. 413/33/13/2024.
68. Complaint of ILAI dated 2 September 2024 filed with the NHRC registered as Diary No.14188/IN/2024.
69. Complaint of ILAI dated 9 September 2024 filed with the NHRC registered as Case No. 42/2/10/2024.
70. "Man accused of raping a tribal Odisha woman engaged as domestic help surrenders before police." The Hindu, 9 November 2024.<https://www.thehindu.com/news/national/kerala/man-accused-of-raping-tribal-odisha-woman-engaged-as-domestic-help-surrenders-before-police/article68848128.ece>
71. "3 workers from UP rape tribal woman in Hyderabad's Madhura Nagar." The Times of India, 6 November 2024.<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city/hyderabad/3-workers-from-up-rape-tribal-woman-in-hyderabad-s-madhura-nagar/articleshow/114997382.cms>
72. "11-year-old's alleged rape, murder in Karauli: Congress MPs, MLAs rally behind Kirodi Lal Meena, seek CBI probe in case." The Indian Express, 21 September 2024.<https://indianexpress.com/article/political-pulse/11-year-old-alleged-rape-murder-karauli-congress-mps-mla-rally-kirodi-lal-meena-cbi-probe-9579992/>
73. Complaint of ILAI dated 21 February 2024 filed with the NHRC registered as Case No.245/12/17/2024.
74. Complaint of ILAI dated 1 November 2024 filed with the NHRC registered as Diary No. 18077/IN/2024.
75. "Amit Shah set to visit Reang tribal camps in Tripura during NEC plenary session." The Times of India, 18 December 2024.<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india/amit-shah-set-to-visit-reang-tribal-camps-in-tripura-during-nec-plenary-session/articleshow/116444961.cms?from=mdr>

76. "Tripura: Bru community blocks Assam-Agartala highway over pending resettlement promises." India Today NE, 29 November 2024.<https://www.indiatodayne.in/tripura/video/tripura-bru-community-blocks-assam-agartala-highway-over-pending-resettlement-promises-1129412-2024-11-29>
77. "Amit Shah inspects Bru package rollout; gets feedback from Brus at their village in Tripura." The Times of India, 23 December 2024.<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india/amit-shah-inspects-bru-package-rollout-gets-feedback-from-brus-at-their-village-in-tripura/articleshow/116581163.cms>
78. "Maoist violence: ST panel urges Centre, States to submit detailed report on status of Gotti Koya tribals." The Hindu, 10 November 2024.<https://www.thehindu.com/news/national/maoist-violence-st-panel-urges-centre-states-to-submit-detailed-report-on-status-of-gotti-koya-tribals/article68851897.ece>
79. Arunachal airport rehabilitation scam victims seek action over delay in submitting probe report, The Sentinel, 3 July 2024.<https://www.sentinelassam.com/north-east-india-news/arunachal-news/arunachal-airport-rehabilitation-scam-victims-seek-action-over-delay-in-submitting-probe-report>
80. Please see website of District and Sessions Court of Papum Pare district at <https://yupia.dcourts.gov.in/> for details of State Vs Bijay Ranjan Chakma & 9 others in Case No. PCA-07/2024 for the Special Judge (PCA)
81. INDIA: Indigenous Peoples are Being Targeted for their Lands & Natural Resources- A Submission to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for its 141st Session [01 July 2024 - 23 July 2024]. 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INT%2FCCPR%2FCSS%2FIND%2F58538&Lang=en
82. UN Human Rights Committee.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ourth periodic report of India. 2 September 2024.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CPR%2FC%2FIND%2FCO%2F4&Lang=en
83. Longkumer, Lanusashi. *Self-Governance and Democracy among the Ao Naga of Nagaland*. (Thailand: Asia Indigenous Peoples Pact, 2024).
84. "Centre yet to formally scrap Free Movement Regime with Myanmar". The Hindu, 26 December 2024.<https://www.thehindu.com/news/national/fmr-with-myanmar-yet-to-be-scrapped-formally-mha-tightens-regulations-for-border-population/article69026504.ece>
85. "Nagaland Assembly adopts resolution on FMR; asks Centre to reconsider its decision". Hindustan Times, 1 March 2024.<https://www.hindustantimes.com/india-news/nagaland-assembly-adopts-resolution-on-fmr-asks-centre-to-reconsider-decision-101709295851427.html>
86. "Take categorical stance on FMR". The Morung Express, 8 January 2024.<https://morungexpress.com/take-categorical-stance-on-fmr>
87. Urban Local Bodies form the urban local self-governance in India, administering or governing a town or a city with a specified population. The 74th Constitutional Amendment Act 1992 mandated all State Governments in India to reserve not less than one-third of the total number of seats in ULBs for women.
88. Jamir, Moa. "Insights for Course Correction". The Morung Express, 1 July 2024.<https://morungexpress.com/nagaland-ulb-elections-insights-for-course-correction>
89. Dhar, Aniruddha. "Nagaland scripts history in assembly election, elects 2 women candidates for first time". Hindustan Times, 2 March 2023.<https://www.hindustantimes.com/india-news/nagaland-scripts-history-in-assembly-poll-elects-2-women-m-las-salhouonuo-kruse-hekani-jakhalu-for-first-time-101677742088284.html>

90. Jamir, Moa. "SDG Index: Nagaland tops in Gender Equality, but falters in key parameters". The Morung Express, 15 July 2024. <https://morungexpress.com/sdg-index-nagaland-tops-in-gender-equality-but-falters-in-key-parameters>
91. "Nagaland civilian killings: MoD denies sanction to prosecute 30 Army men". The Indian Express, 14 April 2024. <https://indianexpress.com/article/north-east-india/nagaland/nagaland-civilian-killings-mod-denies-sanction-to-prosecute-30-armymen-8555344/>
92. "Oting Killings: SC likely to hear Nagaland Govt's petition on Jan 21". The Morung Express, 6 January 2025. <https://morungexpress.com/oting-killings-sc-likely-to-hear-nagaland-govts-petition-on-jan-21>
93. "Oting killings: NSCN-IM, Naga students miffed as SC dismisses criminal proceedings as Army personnel". The New Indian Express, 21 September 2024. <https://www.newindianexpress.com/nation/2024/Sep/20/oting-killings-nscn-im-naga-students-miffed-as-sc-dismisses-criminal-proceedings-against-army-personnel>
94. "RIIN: A critique with ideas". Nagaland Post, 11 October 2024. <https://nagalandpost.com/index.php/2024/10/11/riin-a-critique-with-ideas/>
95. "Nagaland Cabinet approves key decisions on ILP and RIIN". Nagaland Post, 20 September 2024. <https://nagalandpost.com/index.php/2024/09/20/nagaland-state-cabinet-approves-key-decisions-on-ilp-and-riin/>
96. David Lowang, President, WNSU Nocte Tribe, Arunachal Pradesh. "Identity under siege". The Morung Express, 9 October 2024. <https://morungexpress.com/identity-under-siege-who-gets-to-decide-who-is-naga>
97. "Manipur unrest has killed 226 people, over 59,000 homeless: CM Biren Singh". India Today, 1 August 2024. <https://www.indiatoday.in/india/story/manipur-unrest-killed-homeless-people-in-relief-camps-chief-minister-biren-singh-meitei-community-kuki-zomi-community-2575031-2024-08-01>
98. "Manipur: Jiribam has 943 IDPs in Relief Camps; Cabinet Committee for resettlement proposed". The Wire, 14 June 2024. <https://m.thewire.in/article/government/manipur-jiribam-943-idps-cabinet-subcommittee-resettlement/> amp
99. "Mizoram plans relocation of refugees & internally displaced people". The Times of India, 29 November 2024.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city/guwahati/mizorams-plan-for-refugee-and-internally-displaced-person-relocation/articleshow/115812364.cms>
100. "Meitei, Kuki, Naga MLAs meet in Delhi to resolve Manipur crisis". NDTV, 16 October 2024. <https://www.ndtv.com/india-news/meitei-kuki-naga-mlas-meet-in-delhi-to-solve-manipur-crisis-6797917>
101. Yephthomi, Hukavi, Kilonser, NSCN GPRN. "Indo Naga Peace Process". The Morung Express, 27 April 2017. <https://morungexpress.com/indo-naga-peace-process>
102. "Naga Peace Process Faces impasse as NSCN (I-M) threatens to resume 'armed resistance against India". Frontline Magazine, 15 November 2024. <https://frontline.thehindu.com/news/naga-peace-process-goi-accords-nscnim-nagaland-rebels-thuingaleng-muivah-nnpg/article68872294.ece>
103. "UK auction house withdraws 'Naga Skull' sale after Nagaland's protest". NDTV, 10 October 2024. <https://www.ndtv.com/india-news/uk-auction-house-withdraws-naga-skull-sale-after-nagalands-protest-6756419>
104. Recover Restore and Decolonise website: <https://rradnagaland.org/>
105. "Longkhum village witnesses historic leadership transition ceremony". The Nagaland Tribune, 23 November 2024. <https://nagalandtribune.in/longkhum-village-witnesses-historic-leadership-transition-ceremony/>

106. "Nagaland sends comments on proposed FNT to MHA". The Times of India, 9 November 2024.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city/guwahati/nagaland-submits-comments-on-frontier-nagaland-territory-draft-to-mha/articleshow/115118043.cms>

테장 차크마(Tejang Chakma)는 인도 원주민 변호사협회(Indigenous Lawyers Association of India, ILAI)의 연구 책임자다.

킴 치시(Kim Chishi)는 나갈랜드의 디마푸르(Dimapur)에 기반을 둔 나가 인민인권운동(Naga Peoples Movement for Human Rights, NPMHR)의 회원이다.

